***2015.2.1 꼬빌리시교회 연합예배 설교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27절>**

**12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14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15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16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17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18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19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20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21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22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23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24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25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6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27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1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데 필요한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유일하고도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교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도록 부름 받은 공동체입니다.

2 오늘 본문은 교회의 속성을 우리 몸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러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기관의 수가 총 몇 개나 되는 지 아십니까? 독립적인 ‘기관’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대 7,500개, 최소 60개라고 합니다. 이 기관들 중에는 우리가 그 이름이나 기능을 잘 알지 못하는 것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에 한 지체만 있지 않고 여러 다른 지체들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도 서로 다른 인종과 민족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또한 서로 다른 연령과 생각과 특기를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3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것은 내가 다른 지체와 똑같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귀가 눈이 하는 멋진 일들을 보며 속으로 의기소침해져서 자기는 몸에 붙어있지 않다 말했다 칩시다. 그렇다고 귀가 실제로 몸에 붙어있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귀는 분명 몸의 일부입니다. 몸에 속하기 위해 귀가 눈처럼 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눈만 엄청나게 크거나 손만 거인처럼 크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괴물일 것입니다. 우리 몸은 여러 지체로 이루어진 한 몸입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는 알맞은 크기로 알맞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12:18).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원하시는 대로 다양한 사람들을 각각 그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4 몸의 여러 지체들은 하나의 몸을 세우고 움직이게 하는 데 봉사합니다. 손이 해야 할 역할이 있고, 발이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만일 발이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 우리는 생활하는 데 많은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역시 그 몸에서 각기 감당해야 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와 비교하며 그 경중을 따질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 몸에 두신 다른 지체를 향해 “너는 쓸 데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고 본문 22절은 말씀합니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말주변이 좋지 않은 사람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장애인들, 어린이들, 노인들, 이주민들처럼 더 약하게 보이는 교회 구성원들이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몸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교회로부터 더 많은 보살핌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건강을 위해 그들은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5 우리는 내 몸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몸에서 덜 예쁘거나 혹은 부끄러운 부분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씁니다. 그곳을 더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감싸주며 더 주의 깊게 보살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특별히 더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지체도 자기 혼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지체는 저마다 다른 지체를 의지합니다. 이 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6 한국교회는 20세기 초에 놀라운 영적 각성과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그 부흥의 진원지는 지금의 북한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성령께서는 한국에 들어와 일하던 선교사들로 하여금 현지인들에 대한 그들의 우월의식을 회개하게 했습니다. 이어 1907년 1월 12일 저녁 약 1500명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선교사 블레어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으로 설교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말씀을 통해 블레어는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미움이 전 교회에 상처를 줄 뿐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고통을 준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설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그곳에 다시 모인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눈물로 참회하며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진실한 회개는 성도들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선교사와 한국인들 사이에 화해로 이어졌습니다.

7 모라비안형제단이 이주해간 18세기 헤른후트 공동체 속에서도 이와 유사한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형성된 공동체였기에 그곳에도 대립과 갈등이 없을 수 없었습니다. 이 공동체의 리더였던 진젠도르프 백작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이 서로 다른 그룹들 사이의 평화로운 공존과 번영의 길을 하나하나 찾아나갔습니다. 그리고 1727년 8월 13일 공동체가 함께 성만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온 맘으로 회개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공동체의 진정한 하나됨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분리와 대립이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준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들 중 다수는 다시 그 안정된 삶의 터전을 떠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살다 죽었습니다.

8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살면서 어찌 우리 안에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한 몸 되게 한 것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만 복종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마음을 함께 하며 서로 같이 돌보며 살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진리를 함께 붙들고 한 성령을 마시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